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교육시설 감염병 대응 총력

송하진 도지사, 도교육청 · 대학 등과 긴급 방역회의 방역수칙 준수 · 백신접종 완료 독려 등 적극 요청

전북도가 개학을 앞둔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계 기관 · 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송하진 도지사)는 7일 전북교육청, 대학, 초 · 중 · 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도내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시설에서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인원을 경신하고 있고, 특히 이번 설연휴 후 도내 1일 확진자가 천명 선도 넘어서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확산에 완화 방

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교육청, 전북대학총장협의회, 전북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북시립유치원연합회, 전북학원연합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학교 개학 및 개강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 확산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 · 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방인임을 강조했다.

주요 당부사항은 교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 백신 접종률 제

고 새학기 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 검토, 검사 · 치료체계 전환에 따른 자가 검사키트 홍보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의 코로나 대응요령 및 소독지침 등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각별한 관심, ▲초 · 중 · 고교의 수업일수 조정, ▲방학 및 개학 시기의 탄력적 대응, ▲대학생의 백신접종 완료 독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철저 및 입국시 단계별 방역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도 교육청 · 대학 유관단체의 공동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서 각종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희망의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7일 전북교육청, 대학, 초 · 중 · 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도내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방역회의를 열고, 교육시설에서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 경영 · 도정성과 목표 달성 위해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기본조례 따라 도, 전개공 · 전북연구원 등과 올 성과계약 체결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도 산하 공사 ·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최근 기관별 맞춤형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산하 기관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라북도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16개 출자 · 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도는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지난 달 7일부터 19일까지 2022년 출연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설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도정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사 · 출연기관이 도정 핵심시책과 연계된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16개 공사 · 출연기관의 2021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세웠다.

전북개발공사는 민성 공공임대 830호, 군산관광 행복주택 98호 건립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올해 목표를 공정률 100%로 설정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63억을 투입, 146건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계획이

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1,455명을 취업연계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신규사업으로 국산 및 수입차 품질인증부품 7종 개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메디푸드와 대체식품 등 제품개발

28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우량기업 2개사를 유치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여부, 기관장 성과급 지급 (0~120%)에 활용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끊임없는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태문명산업 육성 등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한 축으로서 공사 · 출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간 긴밀한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모든 기관이 올해의 경영목표와 더불어 도정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해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4억3800만 \$

2020년보다 9.8% ↑... 2016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 도, 올 목표 4억9000만 \$ 달성 위해 물류비 지원 등 추진

전북도가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4억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억 달러 대비 9.8%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의 수출성과를 일궈냈다.

도는 올해 수출액 목표를 전년 대비 12% 증가한 4억9,000만 달러로 설정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5억 달러 시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통해 신규 유망 수출 농산물 발굴, 품목별 규모화, 광역 연합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육성,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식품박람회

복합박람회 운영하고, 주요 해외 바이어,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관측행사 개최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국가의 시장개척 교두보로 전북 베트남 · 인도 통상사무소를 활용하고,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최대 농식품 수출지역인 중화권 시장개척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수출 상품화 지원, 시장개척활동 지원, 유통망 확대,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 농식품 기업에 대상 바이어 초청상담 우선으로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성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수출상담회에 해외

우수 바이어를 초청, 수출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기업-행정-수출 관계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사업 및 수출정보 공유, 해외 마케팅 공동대응 등 농식품 분야의 수출 지원 체계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된 영세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수출 관계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시장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 왔음에도 지난해 전북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은 전북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긍정적이라는 신호"라며 "올해는 아직까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비대면 온라인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 해외시장개척 사업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사계절 **심**과 **즐거움**이 있는
휴식 · 치유 · 관광도시 **정읍!**

정읍천변 벚꽃 정읍 피향정 연꽃
정읍 내장산 단풍 정읍 내장산 설경